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9300억원 증액 필요

광주시 “물가·지가 상승 등 불가피”... 정부에 증액 요청  
공사비 3조1414억으로 치솟아 공사 차질·재정난 우려

광주시가 정부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최대 9300억원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증액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설계 변경 그리고 부정확한 예측 탓으로, 정부와 예산안 협의 과정 등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애초 2조 2114억원(국비 1조3268·지방비 8846)에서 최대 3조1414억으로 치솟고, 지방비 부담도 1조2600억원대로 늘 수 있어 향후 광주시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현재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 자칫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 공사가 연기될 수 있고, 정부 방침대로 증액분을 줄이면 부실 공사 우려도 커져 마냥 예산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앞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해 공사 재추진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당시 제시됐던 사업비보다 실제 공사비가 9300억원가량이 늘어 총 3조원을 넘게 들어 간다면 부정확한 예측 등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 2호선 증액분은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의 요청을 받은 정부는 “선례를 남긴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며 “증액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고, 증액분을 낮출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증액분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2구간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17km) 시청-상무역-급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차량기지 1개소), 2단계(20km)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원지구-운남지구-시정(정거장 18개), 3단계(4.8km)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주박

기지 1개)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1단계 공사 중이다.

하지만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최초 사업비 8764억원이었던 2단계 구간의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철도 2호선은 땅을 알게 파는 ‘저심도 공법’으로 대부분 구간을 건설할 계획인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2호선 2구간 일부 구간은 가스관, 케이블선 매장 등의 이유로 저심도 공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광주시는 2호선 2구간 중 3.1km를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로 설계변경했다. 또한, 광신대교와 첨단지구 등 기존 다리를 재사용하려면 광주시의 계획과는 달리, 현재 이들 다리의 안전도가 충분하지 못해 영산강 횡단을 위해 강 하부에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단계 설계단계 총사업비 증액에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추후 별도 보고 예정”이라며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장시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 부지매입비 및 노무비(102%) 상승, 관련 시설 기준 강화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안 사업의 예산을 축소해 먼저 사업을 진행한 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정부의 요구대로 증액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마련 등에 대한 재정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광주시의 당해연도말 채무잔액은 1조2310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2호선 예산 증액에 따라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광주시의 채무잔액은 2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광주시의 예산은 7조3900억원으로, 채무잔액이 2조여원을 넘어선다면 예산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 11월 시민공론화를 통해 시민참여단 243명의 투표로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의 결과를 발표한 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안심 여행지 - 광양 섬진강 마덕포구 ▶11면  
무등기 사회인 야구 결승 대진표 확정 ▶18면  
도시를 빛낸 예술가 공간 - 잘츠부르크 ▶22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교황 방북 제안”...바이든 “반가운 소식”

G20 회의장서 대화

교황 “북 초청장 오면 방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한 일을 설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G20 공식 환영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했다”며 양 정상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회의장인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막을 앞두고 다른 정상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러 가기 전 정상 라운지에서 대기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과 조우해 선 채로 2~3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님을 뵈는 것으로 들었다”며 “나도 어제 (교황님을) 뵈었다. 교황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셨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문

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 교황의 북한 방북이 임기 말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된다

‘위드 코로나’ 3단계 걸쳐 시행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이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시민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운영기간 4주, 평가기간 2주 등 6주씩 총 3단계

에 걸쳐 시행되는 일상회복 정책 제 1단계 동안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은 10명까지다. 다만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무르는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 이하로 계속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중이

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풀려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다. 집회와 행사 규정도 완화돼 당장 내달부터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라면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의 행사도 열 수 있다. 2차 개편 이후부터는 접종자 등에만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규모 콘서트도 열 수 있으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마지막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돼 가족, 친구와 신년회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바이탈뷰티



#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